



오픈도어 북한 기도회

2020년 10-11월

기도제목 1.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야간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제와 코로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는 애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신형 ICBM을 등장시키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인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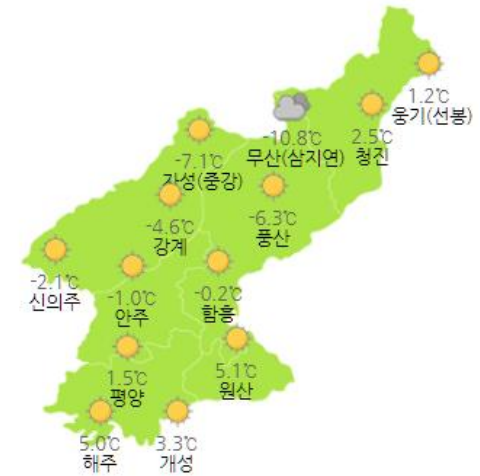
기도제목 2.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겨울이 더욱 빠르게 찾아옵니다. 막 11월에 들어섰지만 압록강, 두만강 유역은 이미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충분한 난방과 의복을 갖추어 줄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겨울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충분한 물자 공급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식량과 의복이 공급되도록 관련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온기 뿐 아니라 영혼의 온기도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11월 09일 09시 현재



<11월 9일 기준 북한 기온 (위), 강변에서 빨래하는 북한 주민 (아래)>



기도제목 3. 조선족 동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선족 교회와 성도들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동북지역 조선족 인구 감소와 당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원 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간된 신앙 서적이나 자료도 사용을 금지당하고 북한 동포와 관련된 사역도 막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인근 시골 지역의 소교회들은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족 교회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당국에 의해 강제폐쇄된 북경 시온 교회(위), 2015년 순교하신 한충렬 목사님 영정(아래)>



기도제목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최근에도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순교의 소식이 현장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그 외에 조선족 선교사 등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에 억류 또는 수감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조선족 사역자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들의 석방과 수용소 철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영육 간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5.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씩 국경이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대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방과 통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의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가능한 사역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해 받을 북한 사람들의 마음 받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북한 여성들, 그리고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6. 대북 라디오 선교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을 기점으로 방송 개편 및 신규 프로그램 방송이 시작됩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사역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번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라디오 사역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7. 한반도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취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은 향후 북미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북핵 폐기 및 인권 존중 등 긍정적 변화가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 대통령을 비롯하여 남북한과 주변국의 의사결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여지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8. 통일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역경과 고난은 그 자체로도 큰 어려움이지만, 이로 인한 교회의 위축은 더 큰 위험입니다. 예배가 소홀하여지고 선교를 중단하고 자기 안위를 돌보는 데만 급급하며 위축되지 않기 위한 영적 각성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통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새롭게 품고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적 평화통일의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북한을 비롯한 선교현장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